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주 나와 함께 하신니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 예수 사랑하심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같이
대표기도		김태동
*성경봉독	행 9:3-7	장대훈
말씀	인생의 전환기에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품안에서
내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웃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영혼 평안해
내똥보다 크신 주님의 계책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행 9:3-7)

3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취 그를 둘러쌌습니다.4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5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6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7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면서 경험해 본 가장 큰 인생의 전환기는 언제였습니까? 한 사건의 before와 after가 거의 단절되는 수준의 큰 변화와,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마저 변화되는 큰 사건을 언제 경험하셨습니다?

저도 몇 번의 큰 전환기를 경험했는데, 저도 이 전환기를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전환기가 올 때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분명한 싸인을 주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전환기가 꽤나 힘들어도, 때론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환기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입니다. 때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힘겨운 전환기를 지나는 자녀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대 전환점'이 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서 유대교의 율법교육을 철저히 받은 바리새인 중에도 핵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적 의협심이 매우 강하였기에,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진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그가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그는 인생의 대 전환점이 된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자 곧 하나님 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이 사울을 책망하시기 보다는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친히 자신의 사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사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때부터 사울에게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그를 도왔고, 이어서 바나바, 그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형제들, 훗날 브리스길라 등등 그의 사역을 통해 그를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에게는, 주님이 사울의 부르심의 사명을 밝혀 주셨고, 바울은 이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행 9:15).

인생 최대의 전환기를 맞은 사울은 처음에는 큰 내적 혼란을 겪었지만, 곧 이 전환기를 잘 수용하고 극복해 냈습니다. 결국,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는 교회의 최고 핍박자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인생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그 비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겸허하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는데, 이는 '왕'에서 '작은 자'가 되겠다는 그의 의중이 담긴 것입니다. 실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항상 낮춰 불렀습니다(고전 15:8-9). 이전의 **월기왕성하고 사기등등한 사울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의 **실패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깔끄러울 수 있는 관계들과도 겸손과 겸허함으로 잘 풀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전환기에는 무엇보다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도, 사람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두번째로, 바울은 닫힌 문에 엮매이지 않고,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과거의 잘못에 엮매여서 미래로 못 나가는 것은 소명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소명자는 때론 죄책감마저 소명 의식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이 소명을 주신 이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날 포기하면 안되는 것입니다(고전 15:10).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과 확신도 그것이 틀렸다면 과감히 내려 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 율법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새 믿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꾸만 옛 생각에 구속되는 완고함과 고집은 곧 우상숭배입니다(삼상 15:23). 하나님은 잘못된 옛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을 최상의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견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을 뚫고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부르심의 순간부터 바울의 앞날에는 고난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를 알았습니다(행 9: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전혀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며 소명을 향하여 묵묵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죄인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환기에 보여준 바울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말씀산책

여러분들도 분명 인생의 큰 전환기를 몇 번은 겪게 되실 것입니다. 그 때, 바울과 같이 겸손하고, 과거 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고난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감으로써, 삶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이 되고, 인생의 역경이 도리어 성숙의 기회가 되는 '승리하는 삶'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기를 주실까요? (혹은 허락하실까요?)
2.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인생의 전환기는 언제였나요? 그 때 나는 인생의 전환기를 어떻게 보냈나요?
3. 다음번에 찾아올 인생의 전환기에 좀 더 신앙적으로 잘 대처하기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나뉘 보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 :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교회 담임, VA)
일시: 3/24(금) ~ 26(주일), 금/토 오후 7:30, 주일 1부 8:30 2부 11시
주제 : "한번 인생"
예배 30분전부터 로비에 다과가 준비됩니다.

성례식

4월 2일 (문답: 4월 1일(토) 오후 2시, 교회)
교육: 3월 18일(토) 오후 2시, ZOOM
성찬식 (청년예배)

선교위원회 음식 판매

Love Austin Love Southern Africa 선교기금 마련
메뉴 : 김밥, 캘리포니아롤, 타코야끼 (메뉴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격 : \$5 (예약주문 가능)
문의 : 김송자 집사

귀납적 (Inductive) 성경공부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6-8시
첫 모임: 3/30/2023 목요일 6시
장소: 교회 혹은 외부 장소
본문: 룻기 (한국어로만 진행)
신청방법: QR CODE



팀원 모집

미디어팀 - 청년부 예배 전 주보를 프린트 해주실 분 (문의: 안혜성)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청년부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